

< 현대그룹과 환경경영 (Eco-management) >

- 현대환경연구원 우석훈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현대그룹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율이 4:1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기간 산업 특히 중화학 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의 환경경영을 통한 녹색화는 국가 녹색화에 있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 가입 및 WTO 체제 출범 등의 국제화 구도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요구의 증대를 고려할 때 현대그룹의 녹색화는 한국 산업체계의 녹색화의 주요 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1994년 그룹환경선언을 통하여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현대그룹은 1996년 현대환경연구원을 발족시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녹색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연구원을 그룹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축의 중심점으로 하여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그룹의 기본 이념은 환경경영 전략(Eco-21)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생명의 지구', '맑은 국토', '녹색경영'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환경 책임주의를 전생산 공정에서 추진하여 제품 책임주의와 조화시켜 초가치 창조라는 경영 기조를 진취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경영의 이념 하에 현대그룹은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자연적 자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21세기에 필요한 그룹 모델로서 '지속발전형 기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지속발전형 기업의 기준은 현재의 그룹 총환경영향성을 현수준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저감, 만족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복원력을 저해하지 않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Win-win 전략은 종합적인 환경효율성의 증대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지속적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지속발전형 기업에 도달하는 것은 ① 통합적 효율화와 ② 환경 혁신의 기업 구조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현대그룹은 녹색경영과 관련된 경영전략의 문제와 청정생산 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업 구조

변화 및 기술혁신의 두가지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속발전형 기업달성의 전략적 목표 이념 하에서 현대그룹은 계열사별 환경경영시스템(EMS)과 그룹통합환경경영시스템으로 나누어 환경경영을 구축하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ISO 14001의 국제 표준화 모듈에 따라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Inventory별 환경관리 체계의 재정비와 사후처리 프로세스 구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ISO 14001 인증은 개별사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까지 제조업 전계열사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ISO의 표준화 모듈인 EMS가 제공하여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줄한다. 현대그룹과 같이 그룹군으로 형성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규모의 효과(Scale effect), 그리고 환경 투자 및 R&D 지출에 따른 환경관련 기술 개발 및 혁신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경영 기구 및 통합적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통합적 환경경영'을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 프로그램, 환경인자 관리의 체계화, 및 환경 기술 정보지원 체계 등을 통하여 그룹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인 녹색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 환경경영을 위하여 현재 현대그룹은 현대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그룹통합환경관리시스템과 LCA를 통하여 관리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Green Accounting을 통한 그룹 사업활동의 환경정보화 및 현대환경백서 발간을 통하여 환경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환경투명성을 실현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환경경영 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속발전형 기업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는 '혁신'(Innovation) 부분은 관련 장비 및 기술에 대한 혁신인 경성혁신(Hard Innovation)과 운용 효율 및 미세 부분 혁신에 관련된 연성혁신(Soft Innova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환경 R&D의 지속적 증대 그리고 환경교육 및 홍보를 통한 환경 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시스템화시킬 것이다. 환경기술 혁신에 관한 그룹

의 노력은 사후처리방식(End-of-pipe)인 현재의 환경 관리 방식에서 환경관리와 생산공정을 연계시키는 예방적 방식(Prevention for pollution)으로의 전환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청정생산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청정생산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현대그룹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환경관리팀과 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적 관점에서의 생산팀을 조직적으로 연계, 원료 조달 및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자원 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저하를 종합적으로 이루어내는 일이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청정 생산은 경성혁신적인 변화만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 작업 공정 하에서는 연성혁신적인 의미의 변화들, 즉 공정 대체가 아닌 공정 개선의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현대 그룹은 이 양 측면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하는 중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Eco-restructuring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 청정생산을 위한 노력은 조직상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다. 특히 지속발전 시대에 적합한 기업으로의 변화는 생산 및 노동의 '유연성' 외에도 '생태적'인 의미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생산량 변화 및 생산 종목 변화 등의 크고 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환경관리팀과 생산팀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 그룹은 80년대 미국에서 그린 마케팅 차원에서 수행되던 여러 가지 명목적 녹색화를 뛰어넘어 경영 방식의 변화 및 청정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녹색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본질적이고 깊숙한 Eco-restructuring이 현대그룹 내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